

협력 강화로 지역발전 이끈다

익산시, 시장·국회의원 참석 당정협의회 개최

익산시와 정치권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현을 시장과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소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국가 예산과 주요 현안 사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는 내년도 국가예산과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 협조사항 당부에 이어 국회의원과 쟁점 사항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시는 지역 정치권에 부처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국가 예산이 기재부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주요 현안인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국립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 △금강하류 하천기본계획 변경, △도시재생 뉴딜사업(합월지역) 공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며 입체적 대응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김수흥·한병도 국회의원은 "당정협의회를 통해 행정과 정치권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발전의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가까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김수흥·한병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정 간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여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롯데칠성음료(주)(대표이사 박윤기)가 22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1천 5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군산 시민에 실질적 도움이”

롯데칠성음료,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1500만원 장학금 기탁

군산시는 롯데칠성음료(주)(대표이사 박윤기)가 22일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1천 5백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군산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지난 1999년부터 장학금을 기탁해 왔으며, 2018년부터는 매년 상·하반기에 1천 5백만원씩 총 3천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현재까지 기탁한 누적 장학금은 4억 2천만원에 달한다.

기탁한 장학금은 군산 및 전북지역에서 판매된 '청하', '처음처럼' 등 롯데칠성음료의 주류 제품 판매 수익금으로 조성됐으며, 군산지역의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윤종 지방민 도매부장은 "군산 시민들의 롯데칠성음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보답하는 뜻에서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다"며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경기가 힘든 가운데, 군산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임준 시장(교육발전진흥재단이사장)은 "군산시 교육발전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로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한 장학금을 기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 해주신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같은날 코로나19로 지친 군산 시민 및 군산시청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롯데칠성음료에서 커피차와 기념품을 제공해 시민과 직원들에게 휴식과 위안을 주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군산=김판곤 기자

제39회 전북자동차 춘계포럼 개최

군산시, 친환경·자율주행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모색

군산시는 22일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제39회 전북자동차 춘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군산시장, 군산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자동차 관련기업 대표, 전북자동차포럼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 산업동향'이란 주제로 (사)전북자동차포럼 주관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 정도현 공주대학교 모빌리티 소부장 사업본부장은 "자동차산업 전환기와 부품업체의 대응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2030년 대부분의 신차는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것이고, 차량 공유와 전기·수소차 시장 또한 급격히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에서는 미래차 엔지니어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기존 인력 재교육 및 지속적인 R&D 투자 확대를 통한 친환경·전동화 등 핵심기술 확보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를 초청해 최근 정부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자동차 R&D사업 및 핵심기술 확보 방안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사단법인 전북자동차포럼은 지난 2002년 11월 옛 대우자동차가 군산국가산업단지 내 입주 하면서부터 전북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 대학과

전라북도, 군산시, 주요 혁신기관, 완성차 및 관련 협력업체 등이 모두 참여한 민간 포럼으로 설립됐다.

전북 자동차 산업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 등을 20년간 주최해 왔으며 본 춘계포럼을 통해 자동차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산학연관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미래 생존 전략 등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임준 시장은 축사를 통해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과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산이 미래자동차 중심지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시설 개선

익산시가 왕궁보석테마관광지에 조성된 놀이체험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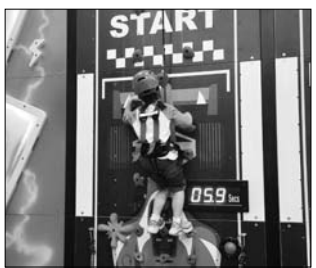
시는 최근 이용객들의 안전 보호와 놀이체험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이노키즈월드와 등반 테마코스인 아트클라이밍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쉽고 재미있게 등반할 수 있도록 홀드(잡고 오를 수 있는 인공 돌) 간 간격을 좁히고 손에 잘 잡히는 그립으로 교체했다.

스카이트레일과 타익스는 이용기준은 동일하지만 수용인원을 15명에서 22명으로 증원했고 레이저타그는 신장 130cm이상(10세이상)을 120cm이상(8세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안전과 눈높이에 맞게 조성됐는지 확인하고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기도 했다.

앞으로 시는 익산 방문의 해를 맞아



왕궁보석테마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필수코스는 물론 직장인들의 단합대회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군산시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76억원을 선불형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29일 현재(국가주정 국회 의결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동양육아동지역 한부모가정 등 1만5천 가구 2만1천 명이다.

선불형카드 지급액은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족 40만원, 4인 가족 1백만원이다.

지급시기는 오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당되는 시민은 읍면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등을 가지고 수령 하면 된다.

이번에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29일 국회 의결로 국비로 지원하게 됐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군산 전통명가 발굴 사업' 추진

군산시가 30년 역사를 이어나온 지역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는 '군산 전통명가 발굴 사업'을 추진한다.

군산 전통명가 육성 사업은 오랜 세월을 버텨온 지역 전통가게를 선정해 업체만의 차별화된 특색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의 전통성을 살리기 위해 실시되며 신청업체를 22일부터 오는 7월 7일까지 모집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지역업체와 '다이어وم 공공마켓' 운영

익산시가 지역업체 판로 확대를 위해 구축한 '다이어وم 공공마켓'이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온라인 구매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업체들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는 공공기관과 일반 시민들이 지역업체와 유기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다이어وم 공공마켓' 플랫폼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이어وم 공공마켓은 시 홈페이지, 착한페이앱과 연동해 운영되며 지역업체가 제품 정보 등을 플랫폼에 등록하면 이용자들이 여러 업체 제품을 비교해 선택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견적요청 게시판도 구축해 이용자들이 요청할 경우 관련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후기를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체 간 품질향상과 서비스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성공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해 SNS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이나 불편 사항 등을 확인해 보다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이어وم 공공마켓 플랫폼이 구축되어 시민들과 지역업체가 유기적인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